

네트워크적 관점을 통한 아시아연구의 네트워킹

손정렬 외, 『네트워크로 바라본 아시아: 사회과학적 관점에서』(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를 읽고

김영룡 경기연구원

I. 들어가며

교통 네트워크, 정보통신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 등 이미 일상생활에서도 널리 쓰이는 네트워크라는 개념은 학계에서는 더욱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네트워크 연구를 대중에게 알린 대표적인 예로, 그라노벤테르의 ‘약한 연결의 힘(the strength of weak ties)’(Granovetter, 1973)이나 ‘케빈 베이컨의 여섯 단계 법칙(Six Degrees of Kevin Bacon)’(Watts, 2003) 등은 다양한 교양서에서도 소개된 바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들어는 봤지만 네트워크 자체만큼이나 복잡해 보이는 네트워크 연구를 아시아 지역 연구에 적용한다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이 책은 ‘아시아라는 커다란 대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 그 기저에 깔려 있다. 아시아는 지리적으로 가장 넓은 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대륙보다도 더 다양한 문화로 구성된 대륙이다. 유럽연합이라는 정치 및 경제통합체로 묶여 있는 유럽, 이민과 식민지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아메리카 등 거대한 대륙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공통점을 뽑아낼 수 있는 반면, 아시아를 아우르는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공통요소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기에 아시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또한 더욱 계통학문과 하위지역 구분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은 이러한 아시아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네트워크적 관점을 제안한다.

II. 책의 구성

이 책은 1장에서 네트워크적 관점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그 학문적인 발달 과정을 소개하고, 이어지는 3개 장에서 각각 인구-도시-국가라는 스케일로 어떻게 네트워크적 관점을 아시아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장 저자의 전공이 사회학, 지리학, (정치)외교학으로 상이함을 감안했을 때, 서로 다른 계통 학문이 네트워크적 관점이라는 도메인을 공유할 때 나타나는 시너지가 잘 드러난다. 마지막 5장에서는 앞의 내용을 요약함과 동시에 네 가지 한계를 밝히고 있는데, 기존의 아시아 지역 연구가 가진 한계를 완벽히 극복하지 못한 데 대한 저자들의 아쉬움과 함께 향후 연구를 제안하며 마무리 짓는다.

먼저 1장에서는 이 책을 구성하는 가장 큰 기둥이라 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아시아 지역연구에 대해 기존의 연구동향과 앞으로의 전망을 논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장은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학문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설명함으로써 ‘네트워크적 관점’으로 일반 독자를 안내한다. 특히 네트워크적 관점은 관계적 사고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상적 사고에 기반한 관점과는 차별화된다. 즉, 네트워크적 관점이 개별적인 이론이나 방법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이 강조하는 바이다. 네트워크적 관점의 장점은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사고, 초영역적인 사고, 보완 및 협력적 관계의 사고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데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기존의 아시아 지역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책의 연구 대상이 되는 아시아라는 대륙은 유럽 중심의 산업혁명 및 근대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변방으로 치부된 바 있다. 그러나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20세기 후반 들어 다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학문적으로도 연구 대상으로서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규모성과 내부의 이질성으로 인해 기존의 지역학 내지 지역연구의 한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이러한 한계는 바로 앞에서 강조했던 네트워크적 관점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네트워크적 관점이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다른 대륙의 지역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겠지만, 아시아의 경우에 그 필요성과 장점이 더욱 더 부각

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책의 기획 의도이다.

1장의 마지막에서는 2~4장의 개관으로 각각 인구, 도시, 국가 네트워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1장에서 각 장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은 여러 저자들이 공동 작업하는 저술에서 빠지지 않는 부분이다. 그러나 많은 책들에서 단순하게 각 장을 요약하는 것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반면에 이 책의 1장은 인구-도시-국가 네트워크가 어떤 스케일 구조상에 있는지를 도식과 함께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이 나무를 보기에 앞서 숲을 먼저 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자칫하면 각각의 인구/도시/국가 네트워크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해하게 될 독자 입장에서는, 1장의 마지막 몇 단락이 인구-도시-국가 네트워크 간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독서에 앞서 본 서평을 먼저 접한 독자라면 그림 1-1(p. 21)과 그에 대한 서술을 특히 집중해서 볼 뿐만 아니라, 책갈피를 끼워놓았다가 각 장을 읽는 과정에서도 중간중간 되돌아와 보기를 권한다.

2장은 인구 네트워크적 관점에서 인구 구조 및 동태의 불균형과 다지역 간의 연계성을 다루고 있다. 이 장의 저자(박경숙)는 국가 단위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글로벌-아시아-국가-커뮤니티의 다층적 스케일에서의 개방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의 높은 인구 규모, 다양성,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네트워크적 관점이 더욱 유용할 것이다. 아울러 인구 네트워크적 관점은 시민권, 젠더, 인종, 가족 문제 등과도 결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3장은 도시 네트워크적 관점에서 아시아의 경제 공간 연구의 공간적 스케일을 국가에서 도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 장의 저자(권규상)는 도시 네트워크적 관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무차별 대입과 분급 작용의 두 가지 관점을 소개한다. 이 두 가지 관점을 적용하여 초국적 기업의 조직망을 통해 세계 도시 네트워크 내에서의 아시아 도시 간의 네트워크 연결도를 분석했다. 네트워크적 관점을 적용하여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택할 수 있는지, 그의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논의한 점이 눈에 띈다.

4장은 국가 네트워크적 관점에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하에서 국가들이 어떻

계 협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면의 갈등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저자(김상배)는 특히 동아시아 네트워크 질서가 체제와 사회의 중간 정도의 수준에 위치한 복잡계 체제임을 강조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한 국가 네트워크적 관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한국과 개별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넘어서 동아시아 네트워크 내에서의 한국의 위치를 중심으로 한국의 외교전략에 대해 논한다. 네트워크적 관점이 필요한 대표적인 예로,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를 남한과 북한이라는 두 노드의 통일이 아니라 통일 네트워크 국가를 달성하는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점이 매우 흥미롭다.

III. 아시아 연구에 기여하는 의의

이 책은 기존의 아시아 지역 연구가 가진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로 네트워크적 관점은 아시아 연구가 가진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준다. 대항해시대부터 시작하여 20세기까지 이어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하에서 피식민국가는 주요한 지역 연구의 대상이었다. 당시에 축적된 지역 연구의 성과를 폄훼할 수는 없겠지만, 다분히 피식민지역을 이용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던 시각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각각의 국가와 지역을 대상화해서 보았던 식민주의적 시각의 영향으로, 각각의 지역 또는 국가가 독립적으로 대상화되고 그들 사이의 관계는 무시된 경향이 있다. 인접한 피식민국가들 간의 관계보다 오히려 식민 본국과 다른 식민지 사이의 중심부-주변부 관계가 강조되었다. 이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과 유럽중심주의(Eurocentrism)에 대한 비판이 20세기 후반에 활발하게 진행되었다(Amin, 1989; Blaut, 1993; Said, 1978).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지역 연구에서도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탈근대주의(post-modernism)의 대표적인 조류인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로 나타난 바 있으며, 특히 라틴아메리카 연구의 기저가 되는 이론으로 발전해 왔다(Escobar, 2008). 이는 거의 모든 라틴아메리카 지역이 스페인 또는 포르투갈에 의해 유사한 양식으로 식민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의 탈식민주의로

많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교집합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아시아 국가들 중 오랜 식민 통치를 받았던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연구 역시 오랫동안 탈식민주의의 영향을 받아왔다. 그러나 아시아 전체로 그 연구 지역을 확장할 경우, 라틴아메리카와 같이 하나의 탈식민주의를 적용하는 데에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아시아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식민국가뿐만 아니라 그 영향의 정도나 방식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제안하는 네트워크적 관점은 전통적인 탈식민주의 관점과 다른 방식으로 서구 중심의 타자화된 아시아 연구를 탈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의의가 있다.

둘째로 네트워크적 관점은 분석의 단위 및 공간적 스케일 차원의 국민국가주의를 극복하는 방법론이 될 수 있다. 17세기 베스트팔렌 조약을 비롯한 유럽 역사의 산물인 근대적 국민국가(nation state)는 역사학뿐만 아니라 정치학, 지리학, 지역학 등 사회과학 전반을 지배해 왔다(최치원, 2010). 특히 한국에서는 냉전 체제하에서 발전주의 국가(developmental state) 모델로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국민국가 기반의 민족주의가 매우 손쉬운 내부 결속 이데올로기로 이용되어 왔다. 학계에서는 국민국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나 시민들의 의식이나 이를 반영한 많은 사회적 담론의 기저에는 우리나라가 단일민족국가라는 믿음이 굳게 뿌리 박혀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내국인들이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빠르게 국제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이민의 망제관계(inter-network relationship) 내에서의 우리나라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근래에 있었던 제주도의 예멘 난민 문제 등에 대해서도 단일민족국가 또는 한 민족중심주의를 탈피한 사고가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인구 네트워크적 접근에 의해 한민족이지만 외국 국적자인 조선족, 고려인과 같은 해외동포의 이주, 노동, 가족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아시아에서는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민족국가 또는 다국가민족 등 민족과 국가가 일대일 관계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국가를 단위로 한 아시아 연구는 대상 설정 자체로는 용이할지 몰라도,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실제 사회 현상을 왜곡된 안경을 끼고 보는 셈일 수도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책에서 제시하는 인구 또는 도시 네트워크의 경우 연구 목적에 따라 국가가 아닌 다양한 스케

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국가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다만, 여전히 국민국가 단위의 통계 자료가 많은 관계로 실증적 분석에서 네트워크적 관점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네트워크적 관점에 기반한 이론적 논의와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 수집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지역학의 문제이다. 과거 지역학은 특정 지역에 대한 종합 학문으로 발전해 왔으나, 20세기에 들어 법칙추구적(nomothetic) 계통 학문의 발달에 따라 기술적(descriptive) 연구가 주로 행해지던 지역학이 부차적인 것으로 도태된 측면이 있다(최병두, 2002). 더욱이 지역학은 여러 지역을 관통하는 이론의 부재로 인해 논리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에 기반한 사회‘과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Schaefer, 1953). 이러한 이유로 사회과학에서는 ‘지역학자’의 정체성보다는 특정 계통 학문에 기반하여 연구 주제에 따라 특정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로 인해 학제간 융합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학 연구에서 계통 학문 간의 벽으로 인해 학문을 넘나드는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책에서는 사회과학적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네트워크 지역학이라는 통섭적인 학문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기여가 크다. 특히 사회과학의 분과 학문 체계에 맞추어 구성되어 있는 기성 대학 및 연구소 환경을 극복하고자 설립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 책 역시 이러한 큰 아젠다로부터 파생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하다.

IV. 네트워크적 관점의 발전을 위한 제언

네트워크적 관점의 사회과학 연구의 역사가 오랜 현 시점에, 과연 이 책에서 제시하는 네트워크적 관점이 얼마나 새롭게 받아들여질지는 독자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네트워크 분석의 이론적 기반은 사실 이미 오래 전부터 ‘관계적 사회학(relational sociology)’이라는 큰 틀 안에서 발전해 왔다(Emirbayer, 1997; Wellman, 1988). 아울러 21세기 들어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

sis) 방법론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컴퓨터 성능 및 관련 패키지의 발전을 통해 그 진입장벽이 더욱 낮아지면서 많은 사회과학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제시하는 네트워크적 관점이 기존의 접근법으로 보여줄 수 없었던 새로운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네트워크적 관점이 아시아라는 거대한 대륙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여주는 것에 치우친 나머지, 그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관계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세방적 국가(glocal state) 논의에서 강조하듯이(Brenner, 1998), 전 지구적(global) 관점과 국지적(local) 관점 양자를 동시에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것만큼이나 그 네트워크 안에서의 개별적인 관계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복잡 다양한 인간들이 만들어 내는 사회 현상들을 하나의 이론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은 자연과학과 달리 사회과학이 가진 숙명적인 한계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복잡성에서부터 새로운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 역시 사회과학이 가진 장점이자 매력이다. 이와 관련하여 네트워크란 단순히 개별적인 노드들의 집합이 아니라, 노드들을 서로 연결하는 링크들을 포함하여 네트워크가 구성된다는 점이 네트워크적 관점이 가지는 진정한 장점이다. 즉, 노드 그 자체의 속성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노드와의 링크를 통해 그 노드의 특성을 규정지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규정하는 대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규정하는 것과 같다. 사회가 사람들 간의 관계로 형성되고 그 반대로 사회를 벗어나서는 온전한 사람일 수 없듯이, 네트워크적 관점은 이러한 사회의 속성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에 더욱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네트워크적 관점이 이론적으로 인용하기는 편리하나 실증적으로 실체가 없는 학문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특히 데이터 기반의 사회과학이 발전하고 있는 추세에서 네트워크적 관점은 그에 적합한 실증 분석과 결합했을 때 그 효용성이 극대화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각 장의 저자들이 실증 분석의 예도 보여줌으로써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실증 분석은 결국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시공간 단위의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책의 2장에서는 동북아 및 동남아 지역의 국제이주 네트워크를 실증적 예로 들고 있

는데,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분석 대상을 15개 국가로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실증 분석에 앞서 강조한 인구 네트워크적 관점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보다 크거나 작은 스케일 단위의 자료나 이주 인구의 인종, 젠더 등과 같은 다양한 속성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과연 네트워크적 관점이라 하더라도 아시아라는 대륙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은 남아 있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네트워크와 서남아시아 네트워크를 단지 아시아라는 이유로 하나로 묶을 수는 없을 것이다. 동아시아는 차라리 호주나 태평양 너머의 미국, 칠레 등을 포함하는 환태평양 네트워크가 현실적으로 더욱 의미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 또한 아시아와 그 인접 지역의 인구, 도시, 국가 간의 관계를 네트워크적 관점을 통해 보았을 때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달리 말하면, 네트워크적 접근법을 통해 아시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시작으로, 아시아에서 나타나는 복잡 다양한 관계들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현상과 문제가 이 책의 네트워크적 접근법에 의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특히 이 책에서 기존의 네트워크 관계가 어떻게 고착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네트워크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며 기존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분석 또한 가능할 것이다. 아시아를 네트워크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연구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다양한 기반의 사회과학자들의 네트워크 또한 기대해본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네트워크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4명의 저자 사이에 네트워킹이 잘 이루어졌음에 대한 반증일 것이다. 이처럼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회과학자들의 네트워크의 확장 및 발전 또한 이 책의 행간에 숨겨진 큰 도전 과제이자 목표이다.

투고일: 2019년 6월 14일 | 게재확정일: 2019년 7월 30일

참고문헌

- 최병두. 2002. “새로운 지역지리학과 세계화시대 지역발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권 2호, 131-149.
- 최치원. 2010. “민족의 형상화 그리고 지식의 재구조화·합리화·권력화 문제.” 『정치사상연구』 16권 1호, 117-144.
- Amin, Samir. 1989. *Eurocentrism*.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Blaut, James. 1993. *The Colonizer's Model of the World: Geographical Determinism and Eurocentric History*.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renner, Neil. 1998. “Global cities, glocal states: Global city formation and state territorial restructuring in contemporary Europe.”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5(1), 1-37.
- Emirbayer, Mustafa. 1997. “Manifesto for a relational sociolog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2), 281-317.
- Escobar, Arturo. 2008. *Territories of Difference: Place, Movements, Life, Rede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Granovetter, Mark S.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80.
- Saïd, Edward. 1978. *Orientalism*. New York: Pantheon Books.
- Schaefer, Fred K. 1953. “Exceptionalism in geography: A methodological examinatio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43(3), 226-249.
- Watts, Duncan J. 2003. *Six Degrees: The Science of a Connected Age*.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Wellman, Barry and S. D. Berkowitz, eds. 1988. *Social Structures: A Network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